“보현행 실천해 화엄의 법석 장엄”

영축총림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30일 여정 입재

12월 13일 입재법문 지안 스님
“화엄경, 대승최상승 법문 의미”
통도사 법요집 개편해 봉정식도
1월 10일 회향, 30일 동안 정진


영축총림 통도사의 화엄산림대법회 입재법회에서 사부대중이 지안 대종사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12월 13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입재했다. 전국 최대 화엄산림법회라는 명성답게 입재법회 시작 전부터 불자들이 법당을 빼곡하게 채웠으며 벽면에 안치된 영가설판 영단에는 흰 국화와 영가옷, 다식 등이 가득했다. 입재식은 먼저 영가의 업을 정화하는 관욕으로 시작해 사시불공으로 이어졌다. 불자들은 사시불공에서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금강계단을 향해 절했고, 참석자들은 영가천도와 화엄경의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아울러 통도사는 새롭게 개편한 통도사 법요집을 봉정했으며, 법요집 개편에 도움을 준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입재법회 법문은 조계종 前 고시위원장 지안 대종사가 설했다. 지안 대종사는 이날 오전 입재법문에 이어 오후에 ‘화엄경 현담’을 강설했다.

지안 대종사는 “수승한 인연 공덕이 모여 화엄산림법회가 열리게 됐다. 이 법회는 부처님과 불법 그리고 스님 등 삼보의 공덕을 기리는 마음이 지극하게 모인 결과다. 수고해주신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화엄경은 대승최상승 법문이며 다른 경전과는 달리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처음으로 설한 법문이다. 이는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성불의 길로 보살행을 강조하며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의 힘을 잘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어 비로자나 부처님이 광명으로 세상을 비추듯 살아가길 바란다”고 설법했다.

화엄산림법회 시작을 알리며 정진을 당부하는 주지 현덕 스님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현덕 스님은 “부모님께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극진한 효도는 바로 법당에서 화엄경을 듣고 인연 모든 영가가 환희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보살의 마음으로 한 달 동안 보현행을 실천하고 많은 대중이 모여 불편한 순간에도 배려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현행 실천으로 수행의 참 열락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는 12월 13일 입재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30일간 봉행된다.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화엄경에 대해 설법하며 총 30명의 법사스님들이 법좌에 오른다. 마지막 법회일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문하며, 회향식에서 불자들은 봉송 의식에 참여한다. 봉송 의식은 불자들이 위패와 다라니를 들고 적멸보궁을 한 바퀴 돌아 열반 정토로 영가를 안내하고 소대한다. 매년 봉송의식에는 10만여 불자들이 대거 동참해 장엄한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아울러 천도의식을 위해 통도사는 매주 토요일 저녁 예불 후에는 금강경 독송과 법성게 장엄염불을 진행한다. 법성게 장엄염불은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친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의식이다. 법성게 장엄염불 의식은 법주인 스님들의 염불을 따라하며 광목끈을 잡고 법당을 돈다. 이는 연기적 관계를 상징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슬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어 고해의 바다를 반야용선을 타고 함께 건너자는 의미다. 이번 화엄산림법회 법성게 법주는 선원 스님(통도사 문수전), 인경 스님(신흥사 주지), 범철 스님(홍제사 주지), 영산 스님(통도사 염불원장), 영수 스님(통도사 노전)이 담당한다.

사상구불교연합회, 장애인 위령재 봉행

장애인 가정에 장학금 지원도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림)는 12월 9일 사상구 관음사에서 장애이웃과 장애인 영혼을 위한 행복나눔잔치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부산불교어산회는 최초로 장애인 영혼을 위한 위령재를 봉행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 돌아간 영령들을 위로했다.

행사에는 사상구연합회 고문 청강 스님을 비롯해 회장 성림 스님, 총무 도법 스님, 감사 법경 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일우 스님, 옥천암 주지 대각 스님, 부산불교어산회 완공 스님을 비롯한 회원 스님과 윤태한 부산시의원, 이종구 · 김종선 구의원 등 300여 대중이 함께했다.

회장 성림 스님은 “몸에 장애가 있다고 마음까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영령들께서는 밝고 편한 본성 자리에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봉행사를 전했다.

연합회 고문 청강 스님은 “어산회 스님들이 염불을 잘해줘서 장애의 슬픔을 가진 유주무주 고혼들도 기뻐하며 이고득락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태상 사상구장애인협회장은 “특별한 자리에 함께해주신 연합회와 어산회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장애인 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사상구장애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초 · 중 · 고교생 12명에게 각 30만원 총 3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김장 3000포기 지역사회 지원

정여 대종사 등 200여 명 동참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직무대행 정오)는 12월 9일 경내 하후원에서 ‘범어사와 함께하는 자비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방장 정여 대종사, 주지 직무대행 정오 스님과 신행단체 회원 및 산하법인기관 관계자 등 봉사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3000여 포기의 김장을 직접 담가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했다. 범어사는 이날 김장을 사회복지법인 범어와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네 등 산하 시설 12곳, 금정구 지역아동센터 4곳에 전달했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사찰에서 모두가 함께 울력하고 나눔으로 회향하니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지 직무대행 정오 스님은 “우리들의 정성과 마음이 전해져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유가합창단 ‘30주년 기념 음악회’ 열린다

진각종 부산교구, 12월 21일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서 ‘다시 증조 정신으로’ 주제로


진각종 부산교구청 산하 부산경남지역 심인당 신교도로 구성된 유가합창단.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음성공양으로 널리 알리고 있는 유가합창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진각종 부산교구청(청장 현강)은 12월 21일 부산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유가합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다시 증조 정신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며, 부산교구 15개 심인당에서 참여한 불자들이 화합해 음성공양으로 법음을 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인사말에 이어 유가합창단이 찬불가 ‘삼보에 귀명하오니’ ‘인과의 그림자’ ‘귀의하는 마음’ 등으로 무대 시작을 알리고 다채로운 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출연으로 유가어린이합창단과 BTN남성중창단이 무대를 꾸미며, 뒤풀이 공연에 권미희 국악가수의 무대도 마련된다.

유가합창단은 진각종 부산교구청 산하 부산경남지역 심인당 신교도로 구성됐다. 30년 전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열반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창단됐으며,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음성공양과 불교포교, 생활불교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창단 이후 부산불교연합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각종 무대에서 찬불가 발표 및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진기 50년 기념음악회 대서사시 발표와 창종 50주년 기념 교성곡 ‘회당’ 발표 등에 참여했다.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현강 정사는 “합창은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균형을 이루는 노력으로 울리는 소리의 조화”라며 “15개 심인당에서 모인 보살님들의 맑고 고운 화음이 우리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활력소가 되는 뜻 깊은 공연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유가합창단은 각종 불교행사에서 종단을 홍보하고 감동과 울림으로 부산교구 신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다”며 “‘다시 종조정신으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올 한 해 동안 종단이 추진해온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사업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 유가합창단의 음악회는 또 다른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삼광사, 김장으로 나눈 ‘이웃과의 정’

김장 1만㎏ 총 1400세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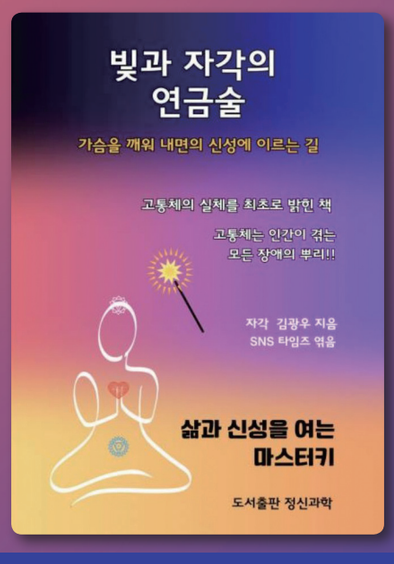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는 12월 7일 경내에서 ‘천태종 삼광사 · 복지재단 부산지부가 함께하는 김장나눔 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재무 무성 스님,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총장 자운 스님을 비롯해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이헌승 부산진구 국회의원, 배영숙 부산시의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배추 5200포기의 김장을 마련하고, 삼광사는 이날 담근 김장에 더해 총 1만㎏를 부산진구청과 서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소득 가정 등 1400세대에 전달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우리가 버무린 김장이 이웃에게 따뜻한 정으로 전해지도록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날마다 좋은날
03144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Tel. 02-733-7277 everygoodday.org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
행복바라미.: 와 함께 따뜻한 연말 되세요!
모금계좌 국민은행 023537-04-003561 (사)날마다좋은날
ARS기부 060 - 701 - 0108

빛과 자각의 연금술 저자
빛을 직접 몸, 마음, 영혼으로 체험
내안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치유 에너지


삶과 불성을 여는 마스터키를 자각선원에서 찾아보십시오.
자각선원은 가슴을 깨워 내면의 불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1. 전생치유, 빙의, 우울증, 정신병, 영가장애, 신병, 무속병, 조현병, 원인을 알수없는 특이한 질병
2. 굿과 천도제로 해결 안되는 영적인 문제
3. 수십년 수행해도 진전이 없는 스님, 보살님, 수행자
4. 가슴이 찢어지게 아팟던 한과 집착 정화 수행, 돈에 대한 한, 관계의 한, 권력의 한, 명예의 한, 사랑에 대한 한, 성에 대한 한으로 정신, 마음에 고통받으시는분
5. 가슴에 한과 집착을 내려 놓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 하고 싶은 분
6. 모든 질병, 고통, 아픔은 감정이 썩어 부정이 물질화된 고통체가 원인, 노여움, 서러움, 부러움, 두려움, 소유욕적인 사랑 가슴 정화 수행
7. 직접 몸,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슴정화, 치유수행
8. 차크라 개발 수행 잠재능력 개발
9. 마음 영혼치유사 제자 양성과정
책 구입 및 교육, 치유 문의 010-9242-5259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43번길 22번지 202호 자각선원